

새해 화합과 도전으로 위기 극복 다짐

군산시의회 시무식... 신년 새출발 알려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위기와 변화를 화합과 도전으로 극복하자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2일 시의회는 새해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30분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실현가능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뿐만 아니라 3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항상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밑그림을 작성했

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경구 의장은 "지난 한해 큰 역경을 협력과 배려, 양보로 이겨내 준 시민들과 23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준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새해에는 어제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이겨내고 재도약을 위해 다시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2019년 기해년에는 지역의 희망을 발굴하고 시민의 꿈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행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열린 시의회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문제와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군산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위기와 변화를 극복하자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의정활동을 펼쳐 군산시가 가장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충실하며 시민권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1월 중순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부의안건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미래가치 선도대학 출사표

군산대 시무식 개최... 광병선 총장 "더욱 소통·협력"

국립 군산대학교(총장 광병선)가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가치 선도대학의 출사표를 던졌다. 2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병선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병선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취임 이후 제8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IT를 제작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종량 및 스마트 양식 등 미래 산업 관련 사업 선정 및 연구에서 두 곳을 낙점하게 됐다"며 "이런 결과는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만든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광 총장은 "군산대학교가 최근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행정의 기본은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군산대학교가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예방 한의약교실 모집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치매예방 한의약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회원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동산동·인화동·평화동·마동 지역 60세 이상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한의약적 대상자의 건강상태 인식, 건강관리 제공, 건강지식 향상,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한다. 또 돌봄, 명상,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군산시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시민들의 환경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2018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총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2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2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등의 환경오염행위와 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 14건 총 23건을 적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정기 지도점검 외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및 민원유발사업장에 대해 전복도청, 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신규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석재업체 환경·시설 개선 전통산업 육성

익산시가 전통산업의 육성에 주력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재업체 생산현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석재업체 환경·시설개선을 위해 총 2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업체 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자부담 40% 이상일 경우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업체가 노후된 제품

생산 관련 기계의 주요 부품 등을 교체할 경우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화장실과 식당, 휴게실, 샤워장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복지편의개선과 함께 집진·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시설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근무하는 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어 하며 사업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사업계획에 여성·장애인 등 양성평등 정책이 반영된 경우와 근로자 주소 이전 등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동참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석재와 섬유 등 전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의 장비 등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농기센터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 친절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위생안전 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이용객 만족도 향상 위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 확립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농업인회관 강의실에서 농어촌 민박 운영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친절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화재 대비 안전관리 등 서비스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농어촌 민박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는 친절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군산소방서 송대근 소방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명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화재경보기, 가스누출 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래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어 방문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길 바라며 민박사업자들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군산시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시무식 개최... 새 출발 알려

익산시가 2일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2019년 시무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정현을 시장과 국·소·단장, 직원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무식은 조창구 의회사무국장의 공무일 윤리헌장 낭독을 시작했다. 시무식에서는 정현을 시장의 신년사, 신규 공무원의 결의 낭독, 시립합창단의 축하 등이 이어졌다.

이날 정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하자는 익산시 사자성어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설명하며 직원들의 참여를 주문했다. 또 유라시아 철도거점 조성, 국가식물원 2단계 사업 조기 착수,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설립 등 익산의 핵심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김재훈 기자

"사람 중심의 대학 건설"... 원광대, 시무식 개최

원광대학교가 2일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2019년 시무식을 열었다. 시무식에는 허종규 원광학원 이사장과 박맹수 총장을 비롯해 대학·병원 구성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구성원 상호 간 세배를 통해 2019년 새해 건강과 행복을 염원

하고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허종규 이사장은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색화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박맹수 총장은 소통과 변화, 도약을 통한 사람 중심의 대학 건설을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광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